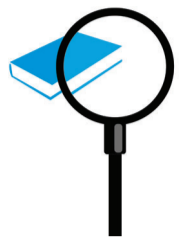


종·오포·사이렌·시계·라디오·달력...근대적 시간의 탄생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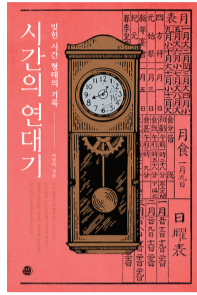
시간의 연대기

이창익 지음

종, 오포, 사이렌, 시계, 라디오, 달력... 위에 열거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면 위의 사물들의 속성을 가로지르는 무언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시간'이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흐르는가. 과연 시간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누구도 시간의 유한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사물들도 예외일 수 없다. 모두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시간이라는 기한에 귀속된다.

역사적인 시간의 연대기를 조명한 책이 나왔다. 근대적인 시간의 형성과 이것들과 연계된 사물을 다룬 '시간의 연대기'는 흥미로운 저서다. 펴낸이는 이창익 고려대 연구교수로 '종교와 스포츠: 몸의 테크닉과 희생제', '조선시대 달력의 변천과 세시의례' 등을 발간했다.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은 "시간의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시대"이다. 저마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시간은 1초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며 모든 것이 시간의 그물에 포획돼 있다시피 하다. 시간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지나치게 '시간화'돼 있다. 텅 비어 있는 시간으로 인해 공허하기도 하고 손 쓸 수 없는 시간의 파괴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저자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시간을 가끔씩 '오프'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따금 시간의 전원 스위치를 끌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의 질곡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언급한다.

저자는 시간을 편의상 세 종류로 구분한다. 마음속에서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는 내면의 시간과 측정 가능한 천문학적 시간, 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제작돼 유포되는 제 3의 시간이 그것

▶세이코사의 청유리를 치시계 (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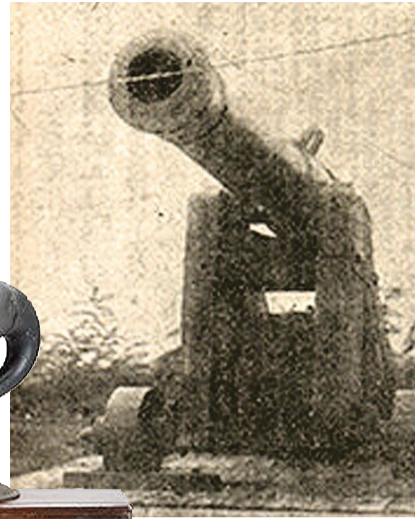


이다. 제 3의 시간은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시간으로 저자가 책에서 주목하는 시간이다.

저자는 일제강점기 자료에 토대를 두고 근대적인 시간의 발아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제국 시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약 50년 동안 근대적인 시간은 천천히 공간을 잠식하면서 영역을 확장"했는데, 공간과 시간의 근대화는 일정한 양상을 보였다.

조선시대 통금과 새벽을 알리던 밤의 종소리는 시종(時鐘)이었다. 물시계가 폐지될 때까지 종소리는 '소리 시계'가 이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시대는 12시시법과 96각법으로 하루를 나눴지만 분과 초라는 시간 개념이 필요치 않는 세상이었다. 범종도 '소리 시계'의 기능을 했는데 시종과 범종은 일제강점기 경종, 재야의 종으로 변질됐다.

한일병합 즈음부터 종을 대신해 오포가 시간을 알리는 수단이었다. 1936년 발간된 '경성부사' 제 2권에는 효창원 오포에 관한 정보가 나온다. 초창기 경성 오포는 한국자군사령부가 관장해 남산 대화정 2정목에 설치했다. 또한 '동아일보' (1922년



경성방송국의 5구식 진공관 라디오 수신기, 오포 폐지 후에도 효창원공원에 방치된 오포(1925년 11월), 남대문소방소의 1924년 모터사이렌, '대조선개국505달력'의 속표지(1896년)(왼쪽부터)

8월 15일자) 기사에는 오포는 한일병합 전후부터 발사됐으며 경성에서는 이미 1907년경 매일 용산의 오포가 발사됐다고 한다.

경성의 정오를 알리던 오포는 1924년 6월 20일 정오 오포를 끝으로 멈췄다. 다음날부터 남대문 경기도 소방과 구내 건설된 철골 망루에서 모터 사이렌이 울렸다. 정오 90초 전 사이렌을 울렸으며 멈추는 때가 바로 정오였다.

라디오의 대중적인 보급과 맞물려 근대적 시간이 시작됐다. 거리 시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시보 장치였으며 근대적 건축물 외벽은 대시계가 부착됐다. 시계를 장식한 곳은 시계 시간의 질서에

편입된 근대적 공간이었다.

한편 달력만으로 '시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시는 근대적인 시간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달력 시간'이 아니라 '시계 시간'이 주도권을 잡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흘러야 했다.

저자는 말한다. 시간 연구가 다른 삶의 가능성을 얘기해주며 "시간 없는 세상"으로 탈출할 수도 있다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파괴된 시간을 치유하여 새로운 '공동의 시간'을 창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본다. <테오리아·4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5 올해의 문제소설

한국현대소설학회 위음

문학 관련 학회 가운데 한국현대소설학회는 '한국의 현대소설'을 강의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구학회다. 현대소설을 연구하고 이론을 정립해 현대소설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매년 한국현대소설학회가 주관해 발간되는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 사상)이 올해도 독자들을 찾아왔다.

지난 1994년 발간 이후 매년 문예지에 발표된 소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을 택해 엮어왔다. 한국현대소설학회가 선정한 문제작들은 새로운 서사적 문법과 감각, 감성을 담은 작품들로 오늘 한국사회의 단면을 재현하는 소설들이었다. 특히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문학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해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올해 '올해의 문제소설'은 2024년 한 해 발표된 중·단편 중 11편이 수록됐다.

11편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만나고 나서 하는 생각' (김병운), '여름이 없는 나라' (서고운), '리틀 프라이드' (서장원), '스무드' (성해나), '작은 발' (예소연), '울겨붙은 소망' (이미상), AKA 신숙자 (이서수), '갈호 밖은 안방' (이주혜), '청의 자리' (이준아), '최애의 아이' (이희주), '과자 집을 지나쳐' (최미래) 등이다.

이들의 작품은 오늘의 한국 문학의 현주소를 가능할 수 있는 소설들이다. 작가들 저마다 개성적인 심미안으로 서사화한 소설은 오늘의 현실과 맞물려 다양한 사유와 미적 감성을 선사한다.

한국현대소설학회는 책머리에서 "지난해 우리 소설은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이라는 상징적인 이정표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문학적 감각과 세대적 감수성의 장발을 알리는, 이른바 장발적 진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우리 소설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푸른사상·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늘을 씁니다

김지원·김미현 외 지음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내 안에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흘러야 해요. 이야기가 흘러갈 때 마음도 흘러가니까요. 그렇게 흘러간 마음은 다른 이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본문 중에서)

'작가'라는 말이 아직은 어색하고 민망하지만 글쓰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책을 썼다. 배움중독 유지원 교사 김지원, '진짜 어른'이 되고싶은 초등교사 김미현, 글 쓰는 순간이 좋은 교사 김민수, 교육활동가 김진옥 등 11명의 교사가 함께 펴낸 '오늘을 씁니다'는 오늘날 독자지만 내일의 작가가 될 누군가에게 글쓰기에 대한 용기를 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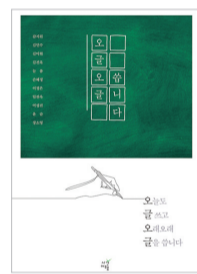
'오늘을 씁니다'는 사전 속 뜻처럼 뻑뻑하게 모여 움직이는 모양이 아닌, 글쓰기를 좋아하고 진심인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오늘도 글 쓰고 오래오래 글을 씁니다'를 줄인 말이다.

책은 총 3장으로 나뉘어 있다. 1장은 교사로서 학교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바를 솔직하게 풀어놓았다. 2장에서는 저자들이 학교 밖, 일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3장은 책과 글쓰기에 대한 저자들의 경험을 담았다.

저자 김민수는 혼자서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글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이후, 직장과 일상의 평범함은 특별함으로 바뀌었고, 오롯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과 예기치 못한 일로 독서와 글쓰기를 잠시 외면했던 적도 있었습니니다. 그런데도 책을 마주하고 마음을 글로 토로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독서와 글쓰기만이 점점 가라앉는 나를 건져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시간여행·1만5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애도의 미학

한선아 지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세월호 침몰, 이태원 압사 사고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죽음을 목도하는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제1 원칙은 올바른 '애도의 윤리'를 지키는 것이다. 레비나스 등 여러 학자는 에토스(ethos-윤리)의 정립과 발전을 철학적으로 개진해 왔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미학'을 통해 타자를 애도할 수 있다는 논지가 있다. 오직 '윤리'에만 천착하기보다 동시대 예술을 매개로 죽음과 소외를 기억하는 방식이 애도의 패러다임을 넓히려는 생각은 흥미롭다.

최근 한선아가 펴낸 '애도의 미학'은 주디스 버틀러 등 사상가 9인의 이론과 예술가 14인의 작품을 통해 타자성의 회복을 모색하는 책이다. 서울대 고고미술사학 및 미학을 전공한 저자는 런던 예술대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예술이론 및 철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주디스 버틀러의 취약성 이론 등 논문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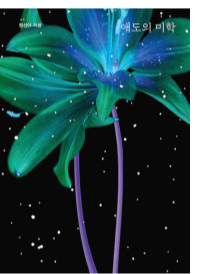
"자율성 없는 체계 속을 글레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다정해지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럼으로써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다."

책은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선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아동학대와 돌봄, 미디어와 프로그래밍부터 홀로코스트와 그 재현, 장애와 불능화 등 다양한 이슈를 톺아보면서도 '나'의 고통을 인지하고, 이를 위무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근간이라 말한다.

나아가 동성애와 인류애, 디아스포라 문제 등 다양한 논제를 예술 작품을 매개로 성찰한다. 가령 비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버틀러와 테레사 마르골레스의 이론·작품으로, 이민과 이주 문제는 로베르토 에스포지토와 조제핀을 통해 사유한다. 매슈 리아오나 리베가 정크스, 이토 바라다 등의 이론·작품활동을 언급하며 예술의 미학의 윤리와 불가분의 존재라는 사실에 방점을 둔다.

<미술문화·1만9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